코스모신소재 (005070)

기업 탐방노트 |

누가봐도 전기차 수혜주

NR

목표주가	NR
현재주가	14,600 원
시가총액	2,883 억원
KOSPI (06/04)	2066.97 pt

Analyst **이왕진** _ 02. 3779 8832 _ wangjin4268@ebestsec.co.kr

컨센서스 대비

상회	부합	하회
	●	

Stock Data

90 일 일평균거래대금	43.1 억원
외국인 지분율	7.3%
절대수익률 (YTD)	-24.5%
상대수익률(YTD)	-23.5%
배당수익률(19E)	0.0%

재무데이터 (IFRS 연결기준)

(십억원)	2016	2017	2018	2019E
매출액	1,903	3,146	5,340	5,311
영업이익	50	85	151	174
순이익	14	82	104	131
ROE (%)	2.77	13.11	12.86	13.80
PER (x)	44.78	27.97	32.80	19.79
PBR (x)	1.21	3.10	3.87	2.55

자료: 코스모신소재,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2019년 매출은 컨센서스 반영

Stock Price

기업개요

- 동사는 1967년 설립되어 1987년 상장되었다. 과거 세안그룹이 전신이였지만, 2010년에 코스모 화학이 지분을 42% 인수하며 코스모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동사의 사업부는 크게 2차전지용 양극활 물질, 잉크 토너 등을 판매하는 분체 사업부와 MLCC용 이형필름을 판매하는 기능성 필름 사업부로 나뉜다. 매출 비중은 1Q19기준 MLCC용 이형필름 24.7%, 양극활물질 72.4%, 토너 및 기타 2.9% 수준이며, 고객사는 삼성SDI, 중국 리센, 삼성전기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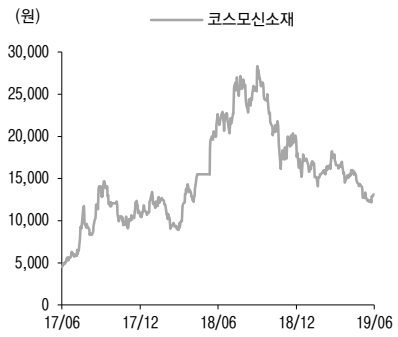
투자포인트: 2차전지 + MLCC

-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1) 2차전지 시장 개화에 따른 양극활 물질 시장 성장 기대, 2) 전장용 MLCC 수요 증가에 따른 MLCC용 이형필름 매출 증가 기대 등이다. 동사는 본디 LCO(리튬코발트옥사이드)라 불리는 IT기기(스마트폰, 노트북)용 양극활 물질을 주력으로 판매하였으나, '18년 12월부터 NCM(니켈코발트망간)이라 불리는 2차전지용 양극활 물질 납품을 시작하였다. 현재 글로벌 S사, L사와 중국 등에 공급하고 있어 향후 2차전지 시장 성장에 따른 직접적 성장이 기대된다. 더하여 동사의 MLCC용 이형필름의 성장도 기대된다. 현재 MLCC 시장에서 글로벌 2위인 삼성전기 내에서 이형필름 M/S를 일본 도레이 첨단소재와 양분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기는 전장용 MLCC에 강한 drive를 걸고 있으며, MLCC시장은 전장용 MLCC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전장용 MLCC 수요 증가에 따른 고부가 이형필름 수요증가가 기대된다.

리스크: 코발트 가격 + 전기차 시장 개화 속도

- 동사에게 리스크는 크게 두가지로 1) 코발트가격과 2) 전기차 시장의 개화속도이다. 동사의 1분기 실적은 1,040/20 억원으로 QoQ -24%/-45%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발트 가격 하락에 기인한다. 동사 양극활 물질에 주요 원료인 코발트 가격은 시장 가격이 공표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은 제품 가격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1분기 실적 부진의 두번째 이유는 전방업체의 MLCC 재고 조정에 기인한다.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속도가 지속적으로 delay됨에 따라 전방업체들이 재고조정을 감행하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코스모신소재는 코발트 가격의 상승시점과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개화 속도에 주목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코스모신소재 목표주가 추이



투자의견 변동내역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괴리율(%) 최고 대비	괴리율(%) 최저 대비	괴리율(%) 평균 대비	일시	투자 의견	목표 가격	괴리율(%) 최고 대비	괴리율(%) 최저 대비	괴리율(%) 평균 대비
2019.06.05	변경	이왕진									
2019.06.05	NR	NR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이왕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93.2% 6.8%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18. 4. 1 ~ 2019. 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